

‘한라산 둘레길’ 언제쯤 마무리될까...

사려니숲길·한라산국립공원 구간 20km 남아
5년째 답보... 탐방객들 “코스 빨리 완성해야”

명품숲길인 사려니숲길을 품은 한라산 둘레길이 연내 완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난제로 작용했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시험림 및 한라산 국립공원 보호구역 경유 문제와 사유지 매입 등이 협의점을 찾아가며 한라산 둘레길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라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한라산 해발 600~800m 고지를 우회하는 일제시대 병참로(일명 하치마키도로)를 재정비해 산림의 역사·문화·생태교육의 장으로 명품 숲길을 조성해 관

광자원화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사려니숲길을 포함해 한라산 둘레길을 찾은 탐방객은 88만8711명에 이른다. 10년 전인 2011년 30만 5000명선에서 크게 늘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15억 2200만원이 투입됐고 노선은 절물휴양림~사려니숲길~수악교~돈내코 상류~시오름~서귀포자연휴양림~거린사슴~노로오름~1100도로~제1산록도로~한라생태숲을 잇는 80km 구간이다. 현재 조성구간은 66km가량으로 천아숲길(10.9km), 돌오름길(5.8km), 산림휴양길(2.3km), 동백길

(11.3km), 수악길(16.7km), 사려니숲길(16km), 절물(조릿대)길(3km) 등이다.

미완의 사려니숲길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시험림 일대를 지나는 노선을 산림보호 차원에서 이를 우회, 5km구간의 옛길을 활용해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간 탐방에는 반드시 숲해설사가 동행해야 한다. 또한 사려니숲길~천아수원지를 잇는 구간이 남아 있다. 특히 이곳은 한라산국립공원에 속한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도는 제주국제대 인근의 삼의약 주변을 경유하는 길도 고려하고 있지만 둘레길에 해당하는 토지가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주와의 협의가 어려울 것

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도청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지만 향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현장답사를 비롯해 둘레길 조성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이용 상황, 사유지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용역을 통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둘레길 조성사업은 제주도의 전체적인 문제로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둘레길 탐방객들은 2015년 이후 5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코스개설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 의지는 물론 산림청과 환경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지난 4월 제주 강수일수 역대 최저
5.5일로 평년의 절반... 1961년 이후 가장 적어

유난히 건조 특보가 많았던 지난 4월 제주지역에 비 온 날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올해 4월 제주의 강수 일수는 5.5일로 196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강수 일수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평년(10.3일)에 견줘 4.8일 적은 수치다. 4월 기준 종전 최저 강수일수는 1993년 기록한 6.0일이다. 비가 온 날이 드물면서 지난달 제

주지역 강수량은 82.1mm에 그쳤다. 이는 역대 8번째로 적은 강수량으로 4월 평년 제주지역에는 109.9~150.9mm의 비가 내린다.

또 4월 평균기온은 13.6℃로 평년보다 0.7℃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 21~24일 북서쪽의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고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닥친 영향으로 이 기간 제주의 기온은 평년보다 3.4℃ 낮은 12.0℃에 머물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내 발전시설, 작년 오염물질 2302t 배출

환경부 전국 사업장 조사
제주 전체 배출량은 2378t

지난해 제주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대부분은 발전시설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그 양은 27만7696t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배출량 33만46t에 견줘 5만2350t(15.9%) 줄어든 수치다. 2016년 이후 3년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

세다. 지난해 제주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378t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번째로 많다. 오염원으로는 질소산화합물이 2020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황산화물(281t), 먼지(42t), 염화수소(4t)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업종별 배출량의 경우, 발전업이 2302t으로 절대적으로 많다. 나머지는 기타 76t이다. 최근 4년간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6년 2382t, 2017년 2653t, 2018년 2526t, 2019년 2378t 등으로 최근 3년간 줄고 있다. 그러나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작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해경, 퇴직공무원 3명
해양오염 전문위원 위촉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퇴직 공무원 3명을 해양 방제 기술 전문위원과 해양 오염 예방 전문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전문위원은 앞으로 도내 영세 선박·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설비 운용 방법과 오염사고 초동 대응 절차 등을 교육한다.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해양자율방재단 대상으로도 방제 교육을 실시하며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땐 해안특성, 해안방제 접근 방법, 방제 관련 민감 정보 수집 등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도 수행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계절 잇는 코스모스 6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인근 도로에 때어난 코스모스가 피어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강희만기자

대정향교 보물 승격 추진에 주변 ‘시끌’
토지주 “개발제한 강화돼 재산권 침해 우려” 반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도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대정향교’ 대성전과 명륜당의 보물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물 승격 시 대정향교 주변 토지주들에 대한 개발 제한이 강화될 수 있어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나타날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대정향교 이내 300m 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대정향교와 가까운 ‘1구역’에는 대정향교 소유의 2필지를 제외하고 개인 소유의 3필지가 포함돼 있는데, 이 구역은 원지형 보존지역에 따라 사실상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또 대정향교에서 상대적으로 거리

가 먼 2구역에는 대략 20필지 정도가 포함돼 있으며, 이 구역에서는 최고높이 7.5m(1층) 이하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다. 앞서 1구역에 포함된 토지주들은 2015년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행정당국에 요청했지만, 제주도 문화재위원회는 조망성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불허 처분 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 토지주는 “현재에도 대정향교 주변 토지는 현상변경허용기준으로 인해 건축행위를 아예 못하거나, 1층까지만 제한돼 있어 재산권행위의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대정향교가 보물로 승격된다면 주변 토지 등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대정향교의 가치를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존하기 위해 보물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승격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만약(승격이)결정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제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각급 학교 교구·설비 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필수 설치 대상을 조합놀이기구 1조에서 조합놀이대 또는 개별 설비 3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전국 최초 ‘놀이·자연 중심 놀이터’ 조성

도교육청 놀이장 기준 개정
도순초 병설유치원 첫 적용

전국 최초로 제주에 ‘놀이·자연 중심 유아 놀이터’가 조성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원 바깥놀이장 설비 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설되는 서귀포시 도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바깥 놀이터가 변경된 설비 기준이 적용돼 소나무숲과 텃밭, 잔디 등을 활용한 ‘놀이·자연 중심 놀이터’로 조성된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가 놀이·유아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지난해 7월 개정, 고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취 임

서귀포시
이장연합회장

이윤수

태흥새마을금고
이사장

양성범

성산읍
이장협의회장

김범수

안덕면
이장협의회장

이우택

표선면
이장협의회장

박태숙

지난 4월30일 창립한 ‘2019년도 서귀포시이장연합회’ 조직체가 늦게나마 각 분야에서 당선되어 취임한 본회 회원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도 서귀포시이장연합회

회장 **고 행 곤** 외 회원일동

합 격

제9회 변호사 시험

이 혜 영

(婚父 : 양재순 · 婚母 : 강숙희)
(親父 : 이현득 · 親母 : 김인순)

학력 : 남녕고등학교 11회 졸업
이주대학교(경영학부) 졸업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취득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버지 형제 일동
(큰아버지 재현, 둘째아버지 재환, 셋째아버지 故 재진, 막내아버지 재수, 큰고모 정순, 작은고모 정옥)

합 격

제9회 변호사 시험

부 지 석

(부 : 부문옥 · 모 : 김순희)
(세화초, 대기고15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동리 외가일동